

112.206 미국사 3-3-0

American History

미국의 역사는 영국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벗어나면서 시작된다.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에서는 인디언을 제외하고는 새롭게 이주해간 유럽인들을 제약할 기존의 신분 체계나 정치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거의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상을 실험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유럽에서 발전한 사상은 미국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미국 헌법이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미국의 헌법제정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그렇지만 이 수업의 목적이 하나의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남북전쟁, 혁신주의, 미국의 노동운동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This course emphasizes the American Constitution and the process of enacting it. It will also deal with various subjects of American history such as the Civil War, reformism, and the American labor movement in order to provide students with wider knowledge of the United States.

112.207 영국사 3-3-0

History of England

주로 잉글랜드의 역사를 중심으로 영국사를 전반적으로 다룬다. 작은 섬나라인 영국은 최초로 산업 혁명이 일어난 나라일 뿐 아니라 한때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광대한 제국을 가졌던 나라이다. 또한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한 의회 제도는 일찍이 영국에서 발달한 것이었다. 이 수업에서는 영국이 어떻게 이처럼 우월한 지위를 차지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동시에 한때 '지지 않는 태양'으로 군림하던 영국이 오늘날 과거에 비해 훨씬 제한된 힘만을 갖게 된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내용은 의회 제도를 중심으로 발달한 영국의 시민사회가 어떻게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압력을 잘 수용하고 이에 적응함으로써 프랑스와 같이 급진적인 혁명을 피하게 되었는지가 될 것이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British history, concentrating on the history of England. This course examines how England came to be the world's dominant force and why this "empire on which the sun never sets" has seen its vast influence diminish in the contemporary world. It pays special attention to how a mature English civil society was able to avoid a radical revolution (such as that of France) through compromise, as well its adjustments to pressures and the effectiveness of its parliamentary system.

112.210 서양근대사 1: 르네상스에서 프랑스혁명까지 3-3-0

Modern Western History 1: From the Renaissance to the French Revolution

유럽 각국에서 절대왕정이 성립되는 시기부터 산업 혁명 이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는 유럽에서 기독교 중심적인 세계관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뀌고, 종교 개혁을 통해 기독교 세계가 분열되는 시기로 현재 우리가 서구 사상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싹트기 시작한 때이다. 따라서 서양의 근대 초에 대한 연구는 현재 우리의 사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구 사상의 초기 형태 및 그 성립 과정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유럽의 봉건제가 무너지고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한 절대왕정이 성립하는 과정은 근대 국가의 특징 뿐만 아니라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This class covers the period from the establishment of absolute states in Europe to the period just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It provides students with valuable

knowledge on early western thoughts and the process of their formation, which have had an enormous impact on our culture and thoughts. In addition, by studying the transition from the collapse of feudalism in Europe to the establishment of absolute states centered on powerful kings, this course acquaints student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tates and the development of early capitalism.

112.211 서양근대사 2: 긴 19세기의 역사 3-3-0

Modern Western History 2: The Long 19th Century

산업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8세기 후반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이중 혁명을 거치면서 세계 여러 문명 중 하나였던 유럽 문명은 다른 모든 문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다. 근대 초부터 진행되었던 유럽의 팽창은 이 시기에 이르러 유럽 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산업 혁명은 전통적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켰고, 프랑스 혁명은 왕에 의해 지배받는 신민이 아닌 국민으로 이루어진 근대 국가의 개념을 탄생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이중 혁명의 영향 아래에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는데 필수적이다.

This course covers the period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 in which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rench Revolution occurred - to the period just before World War I. By being offered an understanding of these periods, the students will also gain an essential understanding of how contemporary society is constituted.

112.212A 영문사적강독 1 2-3-0

English Readings in Historical Literature 1

본 강좌는 영어로 쓰여진 다양한 역사 문헌들을 직접 읽고 토론하는 과정이다. 본 강좌의 일차적인 목적은 서양사를 전공하는 2, 3학년 수준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영어 독해 실력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영어로 쓰여진 역사저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 강독 능력은 역사학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사학의 본질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다양한 서양사를 전공하고자 하는 역사학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료를 읽는 기본적인 실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역사학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역사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In this course we will read and discuss historical literature in English. The main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provide sophomores and juniors majoring in western history with basic English reading skills. Through the course, students will enhance their ability to read primary sources and become acquainted with historical literature that may prove helpful in future research.

112.212B 영문사적강독 2 2-3-0

English Readings in Historical Literature 2

본 강좌는 영어로 쓰여진 다양한 역사 문헌들을 직접 읽고 토론하는 과정이다. 본 강좌의 일차적인 목적은 서양사를 전공하는 2, 3학년 수준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영어 독해 실력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영어로 쓰여진 역사저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 강독 능력은 역사학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사학의 본질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다양한 서양사를 전공하고자 하는 역사학도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함.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 make one semester.)

과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료를 읽는 기본적인 실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역사학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역사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In this course we will read and discuss historical literature in English. The main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provide sophomores and juniors majoring in western history with basic English reading skills. Through the course, students will enhance their ability to read primary sources and become acquainted with historical literature that may prove helpful in future research.

112.301 서양사학사 3-3-0

European Historiography

이 강좌는 서양에서 현재까지 흘러온 역사학의 발자취를 탐구함으로써 ‘역사학의 역사’를 배우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강좌는 그리스로마 시대의 역사 서술에서부터 현재의 포스트모던 역사학에 이르기까지 역사학이 변화-발전해 온 과정들을 주요 저작들과 개념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역사학의 학문적인 본령은 그것의 근원적인 목적과 존재 이유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역사학의 역사’를 탐구하는 이 과정은 역사학에 입문한 사학도들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역사학의 위치와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역사학에 관심이 있는 비전공자들도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는 역사학의 다이나믹한 변화 과정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history of history” by following the trail of historical study from ancient to present times. It covers the period from Greek and Roman times to the present, providing students with knowledge of changes and procedures of historiography.

112.310 독일사 3-3-0

History of Germany

이 과목은 독일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과 더불어 역사전공자들의 깊이 있는 역사 탐구를 위해 독일사의 이모저모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사는 보통 서구 이종혁명의 주역인 영국, 프랑스 역사와의 비교사적 차원에서 주로 언급되어왔다. 하지만 독일 역사 자체도 세계사에 의미 있는 기여를 많이 했다. 따라서 이 강좌는 영국-프랑스사와의 비교검토와 함께 독일사의 고유한 측면에 주목한다. 또 이를 통해 근대 서구가 만들어 낸 민족국가, 근대성, 부르주아 혁명, 파시즘, 민주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의 검토도 시도한다.

This course first surveys the general development of German history. Students will then perform more specific and concentrated explorations of several aspects of German history, comparing it to that of Britain and France. It will also critically examine the concepts of nation/state, modernity, bourgeois revolution, fascism, democracy, and socialism.

112.311 프랑스사 3-3-0

History of France

프랑스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프랑스학’을 배우고 연구하는 이들에게 숙명적으로 다가오는 물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단어이다. 왜냐하면 비유럽세계에 속하는 우리에게 프랑스란, 프랑스인들 자신이나 유럽세계의 같은 일원인 예컨대 이탈리아인들의 그것과는 다른 의미와 실체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랑스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곧 그것이 전 세계나 적어도 유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바꿔 말하면 프랑스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

성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이 비교사적 전망이 본 강의의 遠景을 이룬다. 하지만 본 강의는 비교사적 접근 자체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 대상은 굳건히 프랑스의 과거요, 그것과 현재의 관계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과거에 접근하기 위해 본 강좌에서는 기존의 사회사, 경제사, 심성사, 신문화사뿐만 아니라 근래에 들어 부활되고 있는 정치사 등 다양한 역사 서술을 체험할 것이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rance’s past and its present. To grasp its past, students will explore old-fashioned social, economic, intellectual, and political history, and will also examine the new cultural history which has begun in recent times to be regenerated.

112.320A 역사속의 여성과 여성문화 3-3-0

Women in History

이 강좌는 역사 속 여성의 삶과 문화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여성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여성(및 남성)의 지위가 원래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변화해 온 것이고, 앞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것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여성의 문화를 살핀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 혹은 제3의 성 사이의 상호이해 그리고 일상적 성별 민주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이 강의에서는 여성억압의 원인, 여성의 종속이 지속되어 온 구조, 이에 대한 여성의 대응으로서 여성 운동 등, 전통적으로 여성사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던 내용들을 살피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여성이 주체로서 이루어 온 문화를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근대사회에 대한 여성적 대안, 양성 상호 이해의 길 등의 문제까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This course surveys the status and culture of women in history. Knowledge of women’s history is obligatory for understanding the basic tenet that the status of women (and men) is not nature-given or biologically determined. It was artificially settled down through history and therefore is changeable in society. Study of women’s culture helps to the mutual understanding of men and women, and to the improvement of gender relations in general. In addition to the subjects of women’s history - the cause of women’s oppression, the structure of women’s subjugation and the history of women’s movement - this course therefore will also focus on women’s culture. The latter was created and developed by women as subject (i.e. master; the one who determines) of their life. Further the participants of the class will have the chance of considering on the feminist alternative to the modern society.

112.321 서양의 고대문명 3-3-0

Ancient Greece and Rome

서양의 고대문명은 고대 그리스 문명이 시작되는 크레타 문명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시기까지의 유럽 고대사를 다룬다. 지리적으로는 주로 오늘날의 그리스와 이탈리아 지역을 다루지만,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 고대 문명은 이베리아 반도, 갈리아 지역, 브리튼 제도 등 서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들 그리고 그리스 북동부의 동유럽 지역들까지도 포괄한다. 서양의 고대문명은 오늘날까지도 유럽 문명의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로마적 전통(로마법, 그리스의 민주주의 제도, 그리스 철학 등)과 기독교 전통을 낳고, 발전시켰으며 그것을 중세 유럽 문명에 전달했다. 따라서 서양의 고대문명에 대한 지식은 유럽사 전반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This course covers the period from Cretan civilization (the beginning of ancient Greek civilization) to the fall of western Rome. Geographically the course mainly deals with the regions of contemporary Greece and Italy and the ancient civilizations of Europe including the western regions of Europe (Iberian Peninsula, the Gallican region and the Britain islands as well as the regions of Asian Minor, North Africa, and eastern Europe situated at the northeast of Greece).

It is hoped that the student's improved understanding of ancient Greece and Rome from this course will enable them to gain a stronger grip on European history.

112.322A 서양중세사 3-3-0

Medieval Europe

중세는 ‘현대문명의 어린 시절’이다. 현대 유럽문명의 여러 모습,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원과 성장과정을 엿볼 수 있는 중세로 돌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이 강좌는 유럽 중세시기(5~15세기)의 사회를 사료와 연구서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유럽사회의 토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게르만의 이동으로부터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시기 사이의 주요 주제들, 예컨대 게르만, 카롤링제국, 봉건제, 교권과 속권의 대립, 십자군원정, 경제 및 도시의 발전, 고딕건축, 유럽 각국의 발전, 흑사병 등을 다룬다. 중세유럽을 형성시킨 동력과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중세 성기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습들이 근대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살펴본다. 이 강좌는 유럽의 중세사회가 어둡고 정체된 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유럽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내적 변화가 일어났던 사회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그러한 역동적인 중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한다.

The Middle Ages are the ‘Childhood of the Modern Era’ To understand the various features and institutions of Modern European Civilization, one has to go back to the Medieval Era (5th~10th century) to trace its origins and consecutive development. Under this premises, this lecture seeks to deepen appreciation of the foundations of European society by examining primary and secondary material on Medieval European history. Specifically, this lecture shall treat the main themes between the migration of the Germanic people to the dawn of modern society, such as the early Germanic states, the Carolingian Dynasty, Feudalism, the rivalry between ecclesiastical and secular powers, the Crusades, the growth of cities and the economy, Gothic architecture, the formation of nation-states, the Plague, etc. This lecture shall consider the dynamics and processes that formed the Medieval Ages, and examine how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eatures of the High Middle Ages influenced the shaping of modern society Thus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Medieval Europe was not a dark stagnant society but one of dynamic internal change towards a new Europe, this lecture shall concentrate on furthering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aspects of the Middle Ages.

112.323 20세기 전반의 역사 3-3-0

Contemporary Western History 1

20세기 전반의 역사는 장기 19세기가 끝나는 시점인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부터 전간기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유럽사를 다룬다.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 의회 민주주의의 쇠퇴와 파시즘의 대두, 제국주의 활동의 가열과 국제적 긴장관계의 고조, 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파시즘의 패배로 이어지는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이 이 시기

유럽사를 빼곡히 채우고 있다. 유럽인들에게는 물론이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많은 비 유럽인들에게도 20세기 전반의 역사는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는 지울 수 없는 외상을 심어 주었다. 따라서 이 과목은 여전히 정치와 저널리즘의 주 영역으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현상들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his course covers the epochal period from the outbreak of World War I to the close of World War II. Students will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phenomena that caused events and that are still being acknowledged in the main spheres of politics and journalism.

112.324 20세기 후반의 역사 3-3-0

Contemporary Western History 2

20세기 후반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그리고 동서 냉전체제로부터 시작된 오늘날의 역사를 다룬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역사는 자칫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 의해 편향적으로 해석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역사이다. 전후 근사 반세기 동안 세계 정치를 규정한 냉전체제, 제국의 해체와 신생 독립국가의 등장,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제3세계 문제와 남북문제, 후기 산업사회 및 초국적 자본의 형성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환경, 생태, 빈곤의 문제들 그리고 냉전체제의 해소가 가져온 다양한 수준의 종교적-민족적 갈등들이 이 과목을 통해 다루어지게 될 주제들이다.

Beginning with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resultant Cold War, this course continues on to deal with the current world. Some of the issues that will be covered: the Cold War system that determined international politics after WWII; the dissolution of empires and the emergence of new independent states; the problems of the third world and problem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formation of post-industrial societies and supranational capital; the deteriorating conditions of the environment and ecosystem; poverty; and the various religious and national struggles resulting from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system.

112.326 독문사적강독 2-3-0

Readings of Historical Literature in German

독문사적 강독은 독일어로 쓰여진 다양한 문헌들을 직접 읽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의 일차적인 목적은 서양사를 전공하는 2, 3학년 수준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독일어 독해 실력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독일의 역사연구는 근대 역사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확립하고 그것의 초기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음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의 보다 확장된 목적과 그것이 겨냥하는 효과는 독일어권에서 쓰여진 역사관련 저작들과 사료들을 직접 접하게 함으로써 서양사를 보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양사에 대한 한층 향상된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In this course we read and discuss German historical literature using the German language. Sophomores and juniors majoring in western history will improve their knowledge, reading ability, and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western history by using German historical works and primary sources.

112.328 불문사적강독 2-3-0

Readings of Historical Literature in French

불문사적 강독은 불어로 쓰여진 다양한 문헌들을 직접 읽고 토론했다. 이 과목의 일차적인 목적은 서양사를 전공하는 2, 3학년 수준의 학생들이 기본적인 독일어 독해 실력을 갖추게 하는데 있다. 이 과목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역사학은 역사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것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의 중심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역사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의 보다 확장된 목적과 그것이 겨냥하는 효과는 프랑스어권에서 쓰여진 역사 관련 저작들과 자료들을 직접 접하게 함으로써 서양사를 보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양사에 대한 한층 향상된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In this course we read and discuss French literature using the French language. It aims mainly to provide sophomores and juniors majoring in western history with the ability to read French historical literature. This course, therefore, seeks to broaden students' understanding of, and stimulate further interest in, western history by using historical works and primary sources in French.

112.405 러시아사 3-3-0

History of Russia

러시아사는 각국사의 일환으로서 러시아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러시아의 지리적 여건, 국가형성과정 등에 대한 개관으로부터 시작하여 키예프 공국 시대에서부터 따타르 지배 시대, 모스크바국 시대, 제정시대, 러시아혁명, 소련 및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 공화국의 성립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차례로 살펴본다. 특히 뽀뜨르 1세의 서구화 정책 이후 소련의 성립과 냉전 시기에 이르는 근현대사가 강조될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책과 자료들은 러시아사와 그에 바탕한 러시아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감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Russian history. It deals with issues in chronological order: the geopolitical situation of Russia, the period of Kiev states and the Tartar yoke, Moscow states, the imperial period, the Russian Revolution, the formation and disintegration of the USS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ussian Republic. It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period from the westernization by Peter the Great to the formation of the USSR. By using various kinds of books and primary sources, this course also helps students feel the rich cultural traditions of Russia.

112.425 서양지역사특강 3-3-0

Topics in Western Regional Studies

서양지역사특강은 서유럽 일부와 미국만을 서양의 전부로 생각하는 기존의 역사관을 수정하고 세계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 강좌를 통하여 기존의 유럽 중심적 서양사에서 생략되어 오던 동유럽과 남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소위 주변부에 대하여 새로운 역사적 관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사 전체에 대한 보다 열린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학기마다 이 지역들에 관한 주요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1, 2차 자료들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This course challenges the historical perspective which considers western Europe and America the sole representatives of the west. By doing so, it attempts to promote broad-

er perspectives on world history. This class will provide new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so-called peripheral regions (eastern and southern Europe, Africa, and South America) which have been neglected in past historical descriptions centered on Europe. Important issues relating to these regions are chosen each semester; students will have a chance to study a specific region with the help of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112.431 서양사특강 3-3-0

Topics in Western History

서양사 특강은 학부 4학년을 위한 과목으로서, 서양사의 주요 주제들을 선정해서 다룬다. 각 주제마다 최신의 연구 경향과 주요 업적들을 소개함으로써 전공자들에게 서양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장차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This course provides seniors with an opportunity to explore major topics in western history. It deals with the latest trends of study in each topic and encourages a deeper understanding of western history. This class will prepare students for the study of history at a graduate level.

112.432 서양사연습 3-3-0

Seminar in Western History

<서양사연습>은 서양사에 관련된 졸업논문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을 다지고 직접 논문을 쓰고 수정하는 과정을 익히기 위하여 개설된 과목이다. 수강생들은 스스로의 논문 주제를 선정하고 한 학기 동안 이에 대한 작업의 진전 상황을 교수와 학생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졸업논문을 완성해 나가게 된다. 수업 시간을 통한 논문 발표, 교수와 학생들 간의 토론과 질의응답은 지속적인 수정과 보충을 통하여 논문의 질을 높이는 한편 논문을 쓰는 과정 자체를 값진 학문적 경험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write and edit a thesis for graduation. During the semester, students choose their own subject of study and complete it with the collaboration of instructors and colleagues. The presentation of the thesis in class and discussions between the instructor and students will help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thesis. Furthermore, the experience of writing a thesis will be a valuable asset for the student's future research and studies.

112.433 해양팽창과 근대의 형성 3-3-0

Maritime Expansion and Modern Times

이 과목에서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여러 문명권이 조우하여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비교적 고립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하던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의 사회와 국가가 해상을 통한 상호 접촉이 증가하면서 교류와 충돌이 이어지는 것이 근대 세계사의 기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그러한 문명간 상호 접촉의 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가, 그 결과 세계의 각 지역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한 목표 아래 구체적인 토목으로는 전지구적인 교역의 증대, 정치·군사적 충돌의 격화, 생물학적 교환에 따른 생태 환경의 변화, 인적 교류의 증대와 노예 무역, 종교 전도와 지적 교류 등을 다룰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현대성의 형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This course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ultural encounters around the world during the period 500

to 1800. The history of Modern World can be perceived as a series of maritime exchanges and conflicts between diverse civilizations which developed in relatively independent ways. After examining what was the main impetus of such encounters and how were those processes, large segments of the

course covers various topics concerned as follows: increase of international commerce on a global scale, politico-military conflicts,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Columbian exchange', diasporas and slave commerce, religious conversions and intellectual influences.